Nabokov's Mimicry of Freud: Art as Science

Geon Ho Bahn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나보코프의 프로이트 흉내내기

반 건 호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저 자: Teckyoung Kwon
출판사: Rowman & Littlefield, U.S.A.
출간연도: 2017 (ISBN: 978-1-4985-5760-3)

오래 전 이병욱 교수가 '정신분석'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Lee 2009)을 통해 '나보코프'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다. '롤리타(Lolita)'라는 소설이 그의 작품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 나보코프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었으나 베를린과 파리를 거쳐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노년에는 스위스에서 거주하는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생활한 독특한 인물이다. '나보코프'라는 인물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으나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권택영 교수^a의 최근 저서 'Nabokov's Mimicry of Freud: Art as Science'를 접하면서 이병욱 교수의 '나보코프'가 다시 떠올랐다. 이 책은 M. Andrew Holowchak이 편집하는 '프로이트와의 대화(Dialogue-on-Freud)'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이다.

책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나보코프(Vladimir Nabokov, 1899~1977)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그는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법무장관을 지냈고, 아버지는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였으며 러시아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자유주의자였다. 훗날 나치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 나보코프가 미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유대인을 위해 법을 제정하려 했던 경력을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가 인정하고 여권과 비행기 값을 보태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국어보다 먼저 영어와 프랑스어를 가정교사로부터 배웠고, 불과 17세에 외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만일 볼셰비키 혁명(Bolshevik Revolution)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비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회고했다. 매년 여름이면 드넓은 영지에서 나비와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 그의 취미였다. 1917년, 18세가 되던 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행복한 유년기는 끝이 난다. 가족은 간신히 크림리아반도를 거쳐 배를 타고 그리스로 탈출하면서 어린 시절은 동화 같은 추억이 되고 만다. 이후 나보코프의 아버지는 베를린의 정치 집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오인되어 암살되고, 남동생은 동성애자로 오인되어 나치 수용소에서 굶어 죽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나보코프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열풍에 휘말린 유럽사회와 직면하게 된다. 프로이트의 '극대인간 분석' 사례가 1914년 출판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영국의 지성인들은 너도 나도 분석받기를 희망했다. 러시아에서도 레닌 등 권력가들 사이에서 정신분석이 화제가 되고 제도와 시설이 세워지는 등, 정신분석 열풍은 이념의 폭력성을 경험한 나보코프를 당황하게 했다. 예를 들어, 그는 '창백한 불꽃(Pale Fire)'에서 '원초경(primal scene)'을 비판했다. 극대인간의 실제 인물인 세르게이(Sergei Pankejeff, 1887~1979)는 러시아 귀족의 자녀인데, 그가 어릴 적에 어떻게 부모의 잠자리를 엿볼 수 있는냐는 반문이다. 러시아 귀족은 유모가 아이들을 따로 다른 방에서 재우게 했다는 것이다.

^a권택영 교수는 2013년 정신분석 24권에 "인문학적 뇌: 기억과 인지에 관한 최근 답론"이라는 종설을 발표한 바 있음(29~38쪽).

Address for correspondence: Geon Ho Bah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3 Kyungheedaero-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58-8556, Fax: +82-2-957-1997
E-mail: mompeian@kh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940년 미국으로 망명한 후, 나보코프는 무보수로 하버드 대학 나비 박물관에서 일했다. 이념보다 과학적 섬세함을 사랑한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비 채집과 서식지 연구로 달랬던 것이다. 코넬대학에서 러시아문학과 프랑스문학을 가르치면서 그는 나비 연구와 소설쓰기를 천직으로 삼는다. 그에게 문학은 곧 나비였다. 자연과학과 예술은 숨기고 찾는 ‘흉내내기(mimicry)’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도 하버드대학 박물관에는 나보코프가 채집한 특별 공간이 있다. 그는 나비와 소설은 모두 정교한 속임수를 사랑하기에 이것을 어떤 상징이나 신화로 해석할 수 없다고 믿었다. 프로이트가 유아기를 성으로 해석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유아기에 적용한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은 조국에 대한 사랑만큼 강했고, 유아기란 기억 속에서 한없이 부풀려진 환상일 뿐 에로틱한 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없었다. 더구나 꿈이나 기억을 통해 정신병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기억을 어떻게 일반화(generalization)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종종 프로이트를 “비엔나의 돌팔이(Viennese quack)”, “비엔나의 마녀의사(Viennese witch doctor)”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권택영 교수는 책의 서론에서 나보코프가 나비와 기억에 깃든 속임수를 믿었기에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이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근친상간 터부, 유아기 성등, 마음을 상징이나 신화로 고정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윌리엄 제임스(Williams James)의 심리학과 1910년대 러시아 심리학자 오우스펜스키(Pyotr Demianovich Ouspensky)의 견해를 따른다고 주장한다. 1890년 ‘심리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Psychology)’를 저술한 제임스는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과 유럽의 심리학, 그리고 동물의 뇌 분석을 통해 의식(consciousness)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의식은 고정된 기관이 아니고 끊임없이 흐른다. 기억과 경험의 축적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몸의 습관처럼 일차적인 것과 의식의 진화에 따른 이차적 기억이 있다. 회상이라 불리는 이차적 기억은 현재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과거이기에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과거 그대로가 아니라 현재에 의해 변형된 과거이다. 생각(thought) 역시 경험의 축적에 의해 주관적이고 끊임없이 흐른다. 그리고 대상을 축적된 경험의 눈으로 인지하기에 객관적이지 아니다. 생각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 제임스의 생각의 원리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모더니즘 미학 기법을 탄생시켰다. 기억, 의식, 생각, 시간에 관한 심리학을 철학으로 발전시켜 후에 유럽 현상학(phenomenology)의 모태를 만든다. 후설

(Edmund Husserl),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은 제임스 심리학을 발전시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장에서는 ‘흉내내기’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생물적 현상이 어떻게 미학의 기법이 되는지 밝힌다. 두 번째 장에서는 ‘기억(memory)’의 방식이 어떻게 허구적인 예술기법이 되는지 탐색한다. 흉내내기와 기억의 방식은 ‘속임수(deception)’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생물학과 인문학을 결합한 융합(consilience)의 방식이었다. 나보코프는 인터뷰나 자서전(Nabokov 1989)에서 문학은 과학이고 나비채집과 소설 쓰기는 같다고 주장했다. 권택영 교수가 밝히는 흉내내기와 기억의 속임수에 따른 나보코프의 미학적 기법은 다음과 같다.

“작가는 자신의 등장인물과 구별될 수 없다. 제임스가 말하듯이 생각은 주관적이기에 대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흐른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저자와 등장인물의 경계가 와해된다. 따라서 주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인물은 나보코프 자신이 위장한 모습이고 또 어떤 인물은 그의 적인 프로이트가 위장한 모습이다. 독자는 누가 나보코프의 사상을 대변하고 누가 프로이트의 주요 사상을 대변하는지 가려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위장은 작품들이 진행될수록 복잡해지고 수시로 바뀐다. 작가의 기억과 생각이 나이 들수록 복잡해지고 얽히듯이, 초기보다 중기, 중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작품들이 난해해진다.”

다음으로 중요한 융합기법은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점에 이르면 주인공(물론 나보코프의 변신)이 변형(metamorphosis)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사춘기가 있듯이 나비는 애벌레에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형된다. 재미있는 점은 나보코프로 위장한 인물만이 아름답게 변형을 이루고, 프로이트는 이런 변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상징과 일반화를 주장하는 반면, 나보코프는 우연성(contingency)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기법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미학적으로 구현되는지 권택영 교수는 나보코프의 대표작을 골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루진 방어(The Luzine Defense)’, ‘절망(Despair)’, ‘롤리타’, ‘창백한 불꽃(Pale Fire)’, 그리고 ‘에이다(Ada)’이다. 프로이트의 주요사상과 개념은 어떻게 위장되어 그의 작품 속에 숨어 있고, 나보코프는 어떻게 프로이트와의 대화에서 승리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독자의 즐거움이다. 물론 이 싸움은 때로 코믹하고 때로 슬프다.

세 번째 장에 소개되는 ‘루진 방어’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대한 반론이다. 주인공 루진은 나보코프처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망명하였다. 어릴 적부터 체스게임에 재능을 보

여 고수의 지도로 체스 챔피언이 된다. 체스와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힌 그는 현실의식이 전혀 없다. 그에게 기억은 주로 날씨, 장소 등의 물질과 연결되었고, 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잡을 수 없이 희미했다. 정치적 현실이 싫고 마지막 체스 챔피언 방어가 두려워 그는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고 정신분석가의 치료를 받는다. 권택영 교수는 나보코프가 루진 편에서서 정신분석가들로 위장한 인물들을 풍자하고 있다고 본다. 루진을 둘러싼 아버지, 이모, 어머니, 체스 스승, 아내, 정신분석가 등은 각기 나보코프와 프로이트의 위장된 인물들이다. 체스와 추억 속에 사는 루진에게 현실은 꿈과 같이 잡을 수 없고 끝없이 흐른다. 꿈과 기억은 결코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네 번째 장, '절망'은 이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세 겹의 구성으로 짜여 있다. 프로이트와 대적하는 나보코프의 유머가 한층 더 부각된다. 우연히 자신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발견한 사업가는 보험금을 타려고 그를 자신으로 위장하고 살해한다. 그러나 신분을 바꿔치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는 그의 시도는 나보코프를 연상시키는 화가에 의해 뒤집어진다. 희생자는 실제로 범인과 전혀 닮지 않았었고 오직 그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다. 정신분석을 비롯한 모든 일반화된 이념을 닮음의 착각으로 비유한 것이다. 범인의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는 희생자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를 간과한 것이다. 프로이트에게는 페니스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나보코프에게는 치밀한 계획을 실패로 몰고 간 우연성의 상징이다.

다섯 번째 장, '롤리타'는 프로이트 흉내내기가 미학적 절정을 이룬 작품이다. 이 소설이 유아성욕을 다루었다고 미국에서 출판이 거부되자 프랑스의 삼류 포르노 출판사에서 출간하였고, 그 후 미국에서 출판되었을 때는 베스트셀러가 된다. 1960년대에 큐브릭(Stanley Kubrick) 감독은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려고 작가에게 시나리오를 부탁했다. 큐브릭 감독의 주문 사항은 나보코프에게는 탐탁치 않았다. 시나리오를 원작의 반 정도로 축소하도록 주문받았기 때문이다. 큐브릭 감독은 나보코프의 원래 의도와 달리, 프로이트로 위장한 켄틸(Clare Quilty)과 나보코프로 위장한 험버트(Humbert)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삭제하였고, 결과적으로 나보코프를 섭섭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관객에게는 이 소설이 사십대의 남자가 12세 여아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로만 비춰졌다. 그 사랑이 너무 절실하고 간절하여 유아성욕이라는 비판을 불러버렸다. 나보코프는 훗날(1974년) 자신이 숨겨 둔 시나리오를 출판했다.

'롤리타'는 존 레이라는 정신분석가가 험버트라는 살인자의 수기를 편집하고 쓴 서문으로 시작한다. 배심원과 독자를 향해 쓴 긴 수기의 내용은 자신이 롤리타를 얼마나 사랑했고

큰 죄를 지었는지, 그러기에 그녀를 빼앗아 간 켄틸을 죽인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켄틸은 롤리타를 납치하여 포르노 영화에 이용하고 버리지만, 자신은 온갖 변덕과 속임수를 견디면서 그녀를 보호하고 사랑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고 속이고 끝내 배반하며 켄틸을 따른다. 그런데 수기의 끝에 나보코프는 후기를 붙였다. 후기는 이 수기를 케이스 스터디로 읽는 존 레이의 서문을 뒤엎는다. 켄틸에게는 성적대상이었던 롤리타가 험버트에게는 잃어버린 유아기로 마술처럼 부풀려진 환상이었다. 제임스가 말했듯이 기억은 친근감에 의해 각인되고 먼 기억일수록 크게 부풀려진다. 누가 승리했는가? 험버트로 위장한 나보코프다. 그는 롤리타의 사랑을 얻지 못함으로써 불멸의 예술을 창조한 것이다. 이것이 변형이다.

여섯 번째, '창백한 불꽃'은 프랑스는 물론 미국에서도 많은 비평적 관심을 얻은 작품이다. 성공한 유명시인이 닮은 사람으로 오인되고 살해된다. 그러자 그를 부러워한 동료교수가 그의 장시에 주석을 붙인다. 그런데 주석이 시의 몇 배가 넘게 길고 주석 속에 시와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가 들어 있다. 러시아로 추정되는 먼 나라에서 그가 어떻게 도망쳐왔는지가 시의 주석 속에 묻혀 있는데, 자신은 그 왕국의 왕자였다는 것이다. 환상과 허세와 속임수로 가득 찬 이상한 형식의 소설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비평을 받은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비평이란 객관적 인지가 아니라 결국 사적인 자기 이야기라는 유추도 가능하고 정신분석의 대화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분석자는 결국 환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 역시 이것을 전이(transference)라고 말했다.

시인과 주석가의 관계를 동성에 관계로 보는 비평가들이 있으나 권택영 교수는 이것을 위장으로 본다. 시인은 정신분석을 추종하는 듯이 보이고 주석가는 이를 비판한다. 특히 원초경과 늑대인간분석에 관한 암시가 묻혀 있다. 프로이트는 유아기를 오이디푸스 신화로 해석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라는 삼각관계로 풀었다. 주석가는 셰익스피어의 극 '아테네의 타이먼(Timon of Athens)'에 나오는 구절로 이에 대응한다. 태양은 바다를 흠치고, 달은 태양의 빛을 흠치고, 바다는 달을 삼켜 버린다. 이 구절로 나보코프는 오이디푸스 삼각형 대신에 우주적 흉내내기(흠치기)를 대치한다. 시인, 주석가,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시간'이라는 살인자 가운데 태양, 달, 바다는 누구에 해당되는가? 권택영 교수는 이 관계를 세밀히 추적하여 시간의 본질을 드러낸다. 살인자가 주석가를 시인으로 오인하여 죽였기에 작품이 태어난다. 시간은 우연을 품고 기억과 생각을 조작하는 마술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흔을 기억으로 되찾으려는 것은 무리한 작업이다. 이것이 나보코프의 암시다.

일곱 번째 장은 작가가 70세에 발표한 ‘에이다’이다. 이제 위장과 기억의 속임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작가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다’는 미국소설 가운데 가장 난해한 소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어린 시절 사랑에 빠진 사춘누이, 에이다가 사실은 친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머니와 아들의 근친상간이 아니라 형제 간의 근친상간이다. 금지되고 추방된 연인은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가 되어 지난 시간을 회상한다. 누이는 별레를 사랑하여 과학자를 꿈꾸었고, 서술자는 정신분석가이자 철학자가 되었다. 성적 근친상간이 아니라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하나되는 융합의 근친상간이다. 노년의 기억은 희미하다. 오래된 기억일수록 과장되고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든다. 특이성이 없기에, 혹은 기억의 저장고가 넘쳐서 나이 들수록 망각이 늘어난다. 이를 반영하듯이 소설은 앞부분이 상당히 길고 누이의 확인을 받으며 서술되고, 뒤로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권택영 교수는 이런 구조를 밝히면서 주인공이 프로이트적 정신분석가에서 점차 제임스적 심리학자요, 현상학자로 변형(metamorphosis)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분석과 함께 권택영 교수는 프로이트에 대한 많은 오해는 이론과 치료현장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보코프가 소설 속에서 오해한 프로이트의 용어와 개

념들을 바로잡고자 시도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나보코프가 프로이트를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코믹한 과정과 그에 따른 프로이트와 관련된 오해를 풀고자 하였다. 사실 ‘꿈의 해석(Die Traumdeutung)’만큼 프로이트가 실패작이라고 반성한 경우도 드물다. 동료인 플리스(Wilhelm Fliess)의 ‘자의적(arbitrary)’이라는 비판에 프로이트는 그 다음 책들로 응답했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경우 이를 조금씩 수정해 가는 데 평생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권택영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나보코프 역시 ‘흉내내기’를 일반화하고 있다. 나보코프는 시인이며 과학자였고, 프로이트는 과학자이며 시인이었다. 둘 다 유머를 사랑하고 절대논리와 독재에 저항했다.

Acknowledgments

‘나보코프’라는 작가가 매우 독특한 인물이며, 책 내용 자체도 대단히 이해가 어려운 점들이 많았기에 서평을 쓰는 과정에서 원저자인 권택영 교수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REFERENCES

- Lee BW. Nabokov and The Wolf-Man. *Psychoanalysis* 2009;20:150-161.
Nabokov V. *Speak, memory: an autobiography revisited*.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1989.